신용카드리뷰
The Credit Card Review

Vol 19-1(2025년 03월)

기업의 ESG등급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KOSPI상장 제조업종중심으로

고 민 수
ESG인증원 원장,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김 상 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신용카드학회
Korean Creditcard Academic Society

www.kci.go.kr

기업의 ESG등급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KOSPI상장 제조업종중심으로*+

고 민 수**
ESG인증원 원장,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김 상 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환경(E), 사회(S), 경영투명성(G)으로 구성된 ESG 경영이 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 연구는 금리상승 국면에서 ESG 등급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복탄력성 측정하기 위해 2021년 3분기와 2022년 3분기를 비교하여 매출성장률을 사용하였으며,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등급이 부여된 KOSPI 상장 제조업종 4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E) 측면은 매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사회(S) 측면은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측면과 지배구조 측면은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ESG 경영활동, 특히 환경 측면에서의 성과가 불확실성 증가 시기의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위기 극복 능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ESG 경영성과가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연구의 학술적 기여로 볼 수 있다.

핵심 단어: ESG 평가등급, 회복탄력성, 매출성장률, KOSPI 상장 제조업종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 및 확장하였음.

** (제1저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3길 21 제6층 제603호(서초동) Tel: 010-7614-0875, E-mail:gomminsu@hanmail.net

*** (교신저자)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연구관 505호, Tel: 02)760-8038, E-mail: brainkim75@hansung.ac.kr

www.kci.go.kr

Ⅰ.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적 충격과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었으며, 이는 기업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역량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Thi Hong Van Hong, 2020).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Oxford Dictionary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어려움이나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는 능력과 강인함"으로 정의하며, World Economic Forum(WEF)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설명한다. 기업 회복탄력성은 강한 외부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견딜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의미하며(David C. Broadstock, 2020), 이는 내부 경영 역량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이다(Coutu, 2002).

한편, 21세기 들어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했다(김동주, 2009). 1950년대부터 서구 선진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CSR(Carroll, 1979)은 1980년대부터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한기수, 1987; 정영모, 2007).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로 확장되어,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Alex Cheema-Fox,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경영 환경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분석하고, ESG 경영이 기업 회복탄력성 강화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핵심 가치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있다. Albuquerque et al. (2019)와 Lins et al. (2017)는 환경,사회,경영투명성 경영 활동의 긍정적 영향을 주장한 반면, Demers et al.

www.kci.go.kr

(2021)은 그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ESG 활동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2022년 3분기를 중심으로 금융 불안정 기간 동안 기업의 ESG 활동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ESG 등급을 통합(T), 환경(E), 사회(S), 경영투명성(G)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ESG 경영활동과 기업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등급 데이터와 DataGuide의 재무데이터를 활용했으며, SPSS 23을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대상은 KCGS의 ESG 등급을 보유하고, DataGuide에 재무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재무적 어려움이 없는 코스피 상장 제조기업으로 한정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담았다.

이를 통해 ESG 경영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에서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ESG 경영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비재무적 지표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요소이다(Galbreath, 2013). 최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ESG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박경서, 2021).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업 운영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ESG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범위한 영업 중단, 공급망 붕괴, 직원 건강 위험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기업들은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삼정KPMG, 2020). ESG 경영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환경, 사회, 경영투명성의 균형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정현경 외, 2024).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자원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며, 기업의 관점에서는 사회와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www.kci.go.kr

것을 뜻한다(정현경 외, 2024). 실증연구들은 ESG 경영의 효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ESG 경영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은 재무 변동성 감소, 영업 성과 개선, 생존율 향상 등의 이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재득, 이진춘, 2017; Ortiz-de-Mandojana and Bansal, 2016). 특히 사회·환경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들은 위기관리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임현일, 최경진, 2018). 투자 측면에서도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은 시장 변동기에도 투자 유치와 투자자 신뢰 유지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김수욱, 이치송, 2015; Coppola and Rinkel, 2020).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강력한 ESG 이니셔티브를 가진 기업들이 더 높은 주식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는 ESG가 재무적 위험 완화에도 기여함을 시사한다(Lins et al, 2017). 다만, ESG 평가 기준의 표준화와 성과 측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평가 방법론의 다양성으로 인해 통일된 기준 수립이 어려우며, ESG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환경, 사회, 경영투명성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ESG 경영은 단순히 경영의 한 부분이 아닌,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지속적 성장을 통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강현숙 외, 2024)

<표 1> ESG 경영의 정의 정리(양진수, 2021)

순	ESG 경영의 정의
1	기업의 목적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공동 제고로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의 효용 증대를 목표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업은 이해관계자 효용 제고를 목적함수로 두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뿐더러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ESG 경영을 추구해야 함(김광민, 2019).
2	ESG 관점에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 실행 체계 등을 구축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효정, 김규림, 임두빈 외, 2021).
3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업이 환경,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분에 의미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경영 전략이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과거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의 외부효과와 주주-이사회 간 대리인 문제를 기업 스스로 내재화한 경영 전략(박영석, 이효섭, 2021).
4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 지역사회, 고객 등 경제·사회적 영향을 내재화하여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고자 하는 경영활동(IBK경제연구소, 2021).

www.kci.go.kr

2.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시에도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utu, 2002). 이 개념은 Hollings (1973)가 생물학에서 처음 제시한 이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WEF 세계경제포럼은 회복탄력성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효과가 큰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Broadstock (2020) 등의 연구자들은 이를 기업의 내부 관리 능력으로 보며, 선제적 ESG 관리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다(윤조현, 2021).

<표 2> 회복탄력성 정의 (권재득, 2017)

저 자 정 의	분 야
Merriam-Webster (2007)의 변형 후에 그 크기와 형태를 회복하는 역량	엔지니어링
Folke et al. (2004)의 다양성, 완전성 그리고 생태적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혼란에서 반등하는 능력	생태학
Gorman et al. (2005)의 역경에서 회복하는 능력	심리학
Stoltz (2004)의 역경에서 회복하고 전보다 더 강하게 전진하는 능력	리더쉽
Rice and Caniato (2003)의 예기치 못한 붕괴에 대응하여 정상 운용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	공급망
Sheffi (2005)의 붕괴를 방지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것	공급망
Christopher and Peck (2004)의 원상태로 되돌아가거나 혼란이 오기 전보다 더 새롭고 바람직한 상태로 가는 시스템 능력	공급망
Fiksel (2006)의 복합산업 시스템이 격변 상황에 직면하여 생존, 적응 그리고 성장하는 능력	공급망

Seville et al. (2008)는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자원의 중복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조직

www.kci.go.kr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회복탄력성이 우수한 기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략적 적응력을 통한 우수한 경영관리 역량 확보, 리스크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그리고 강력한 거버넌스를 통한 책임 있는 기업경영이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단기 수익률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회복탄력성을 명시적으로 설계, 측정 및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 진보 가속화, 세계 경제의 상호 연결,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위험들이 증가하면서, 회복탄력성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ESG 활동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특히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매출성장률 변화와 ESG 등급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ESG 활동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로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 체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ESG 통합등급(T)과 함께 환경(E), 사회(S), 경영투명성(G) 각 영역의 개별 평가등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ESG 활동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각 영역별 영향력의 차이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속변수로는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의 매출성장률 변화를 설정하였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회복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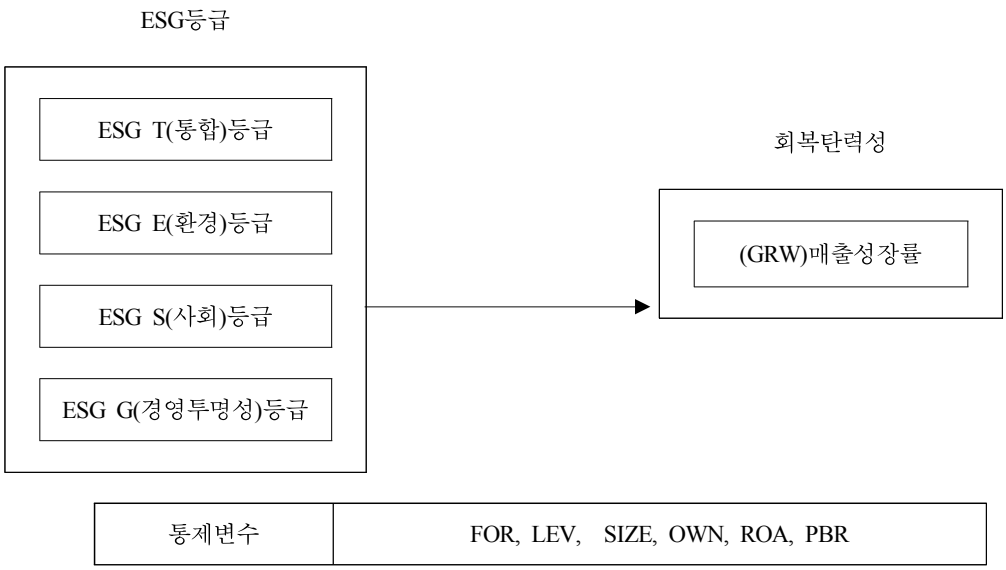
또한 연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크기, 부채레버리지, 수익성, 업종 특성, 기업 연령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은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로서, 이들을 통제함으로써 ESG 활동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기업들의 ESG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영환경에

www.kci.go.kr

서 ESG 활동이 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표 3>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ESG 경영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ESG 통합등급(ESG_T)은 기업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2] ESG 환경등급(ESG_E)은 기업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3] ESG 사회등급(ESG_S)은 기업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설4] ESG 경영투명성등급(ESG_G)은 기업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www.kci.go.kr

3.3 변수에 대한 정의

3.3.1 독립변수

본 연구는 ESG 경영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하는 ESG 평가등급을 활용하였다. KCGS의 ESG 평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의 등급을 포함한다.

- ESG 통합등급(ESG_T):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
- 환경등급(ESG_E): 환경 경영 수준을 평가한 등급
- 사회등급(ESG_S):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평가한 등급
- 경영투명성등급(ESG_G):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한 등급

영역별 각 등급은 S, A+, A, B+, B, C, D의 7단계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 등급별로 S는 7점, A+는 6점, A는 5점, B+는 4점, B는 3점, C는 2점, D는 1점을 부여하였다.

<표 4> KCGS ESG 등급: ESG 등급체계 및 등급별 점수

S	A+	A	B+	B	C	D
탁월	아주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7	6	5	4	3	2	1

3.3.2 종속변수

본 연구는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매출성장률(GRW)을 활용하였다. 매출증가율(GROWTH)은 전기매출액에 대한 당기매출액과 전기매출액의 차액으로 계산하며, 기업의 성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비율이라 할 수 있다.(Zheng et al, 2022; Jin et al, 2023)

매출성장률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지표이다.

매출성장률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매출성장률(GRW) = (2022년 3분기 매출액 - 2021년 3분기 매출액) / 2021년 3분기 매출액 × 100

본 연구에서는 DataGuide에서 제공하는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2021년 3분기 대비 2022년 3분기의 매출성장률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회복탄력성의

www.kci.go.kr

적절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

- 3분기 대 3분기 비교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
- 2022년 3분기는 금리상승기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로, 이 시기의 매출성장률은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잘 반영한다.
- 매출성장률은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의 시장 적응력과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3.3.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 회복탄력성과 ESG 평가등급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기업크기(SIZE), 부채레버리지(LEV), 총자산수익률(ROA), 외국인지분비율(FOR), 대주주지분율(OWN), 주가의순자산비율(PBR)을 활용하였다. SIZE는 총 자산의 로그값을 사용했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 재무적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DataGuide에서 제공하는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IV. 실증분석과 연구결과

4.1 표본의 선정

이번 연구는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평가를 위해 한국ESG기준원이 매해 발표하는 ESG 등급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401개(코스피 797개 및 코스닥 상장사 1,604개, 2022년 9월말 기준) 중 483개의 코스피 제조업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상장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1)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
2) KOSPI 상장 제조업종 (코스닥 상장 제조 기업 제외)
3) DataGuide에서 재무Data를 제공하는 기업
4) 관리종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업

4.2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21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 중 455개 기업의 재무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www.kci.go.kr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매출성장률(GRW)의 평균은 17.42%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22.21%로 기업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소값은 -38.38%, 최대값은 145.03%로 나타나 기업별로 성장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명	Min	Max	Mean	Std. Dev	Var	Skewness	Kurtosis
ESG_T	1	6	3.21	1.134	1.286	.430	-.972
ESG_E	1	6	2.74	1.336	1.786	.291	-.956
ESG_S	1	6	3.33	1.498	2.246	.554	-.906
ESG_G	1	6	3.72	.858	.737	-.135	-.065
GRW	-38.38	145.04	17.42	22.21	493.28	1.234	4.691
LEV	2.92	995.55	121.20	134.90	18198.67	3.449	15.797
SIZE	17.29	26.79	20.36	1.54	2.35	1.018	1.582
FOR	0.00	79.48	8.69	11.87	141.15	2.641	8.665
OWN	3.35	89.98	44.46	15.72	247.43	-.091	-.291
ROA	-30.66	38.74	4.12	7.28	53.01	-.087	4.845
PBR	.03	16.84	1.16	1.37	1.90	5.421	45.371

주: GRW(매출성장률), LEV(부채레버리지), SIZE(기업크기), FOR(외국인지분), OWN(대주주지분), ROA(총자본수익률), PBR(주가의순자산비율)

독립변수인 ESG 등급의 경우, ESG 통합등급(ESG_T)의 평균은 3.21점, 환경등급(ESG_E)은 2.74점, 사회등급(ESG_S)은 3.33점, 지배구조등급(ESG_G)은 3.72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ESG 관련 변수들의 최소값은 1점, 최대값은 7점으로, 전체 등급 범위에 걸쳐 표본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배구조등급(ESG_G)의 평균이 가장 높고, 환경등급(ESG_E)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경 관련 활동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www.kci.go.kr

4.3 상관관계분석

<표 6>은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매출성장률(GRW)은 ESG_E(환경)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ESG 평가등급 변수와 일부 통제변수에서는 명확한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등급 변수들 간에는 대부분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 다른 영역에서도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합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상관관계분석

	1 ESG_T	2 ESG_E	3 ESG_S	4 ESG_G	5 GRW	6 LEV	7 SIZE	8 FOR	9 OWN	10 ROA	11 PBR
1 ESG_T	1										
2 ESG_E	.852**	1									
3 ESG_S	.878**	.731**	1								
4 ESG_G	.742**	.523**	.612**	1							
5 GRW	.063	.125**	.015	.096*	1						
6 LEV	.078	.109*	.038	.053	-.062	1					
7 SIZE	.678**	.649**	.660**	.523**	.131**	.086	1				
8 FOR	.322**	.325**	.326**	.318**	.067	-.148**	.493**	1			
9 OWN	.044	.053	.017	-.001	-.008	-.043	.065	-.097*	1		
10 ROA	.179**	.198**	.179**	.174**	.442**	-.284**	.271**	.253**	.068	1	
11 PBR	.031	.039	.032	.007	-.011	.096*	-.098*	.007	-.166**	-.057	1

주1: GRW(매출성장률), LEV(부채레버리지), SIZE(기업크기), FOR(외국인지분), OWN(대주주지분), ROA(총자본수익률), PBR(주가의순자산비율)

주2 : *: p<0.05 ,**: p<0.01 ,***:p<0.001

www.kci.go.kr

통제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총자산수익률(ROA), 기업크기(SIZE), 외국인지분(FOR)과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ESG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주주지분율(OWN)과 부채레버리지(LEV)은 ESG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환경(E) 부문의 성과가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나타내는 매출성장률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기업의 ESG 경영, 특히 환경 부문에서의 성과가 기업의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규모, 수익성,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도가 ESG 성과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ESG 등급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모형요약 분석에서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인 부채레버리지(LEV), 기업크기(SIZE), 외국인지분(FOR), 대주주지분(OWN), 총자산수익률(ROA), 주가의순자산비율(PBR)을 투입하여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모형2]에서는 ESG 관련 독립변수인 ESG 통합등급(ESG_T), 환경등급(ESG_E), 사회등급(ESG_S), 지배구조등급(ESG_G)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7> 모형요약

모형	R	R제곱	조정된 R제곱	통계변형					Durbin-Watson
				R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수준	
1	.452a	.204	.193	.204	19.237	6	447	.000	
2	.478b	.228	.211	.023	3.521	4	443	.008	1.917

분석 결과, [모형1]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0.204로 나타났으며, ESG 관련 변수들이 추가된 [모형2]의 R^2값은 0.228로 증가하였다. R^2 변화량은 0.024로, 이는 ESG 관련 변수들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약 2.4%임을 의미한다.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R제곱 F변화량은 3.52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8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ESG 관련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후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즉, ESG 등급이

www.kci.go.kr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ESG 경영 성과가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재무적 요인들과는 별도로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8> 분산분석

모형	구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값	유의수준
1	회귀분석	45881.122	6	7646.853	19.237	.000
	잔차	178075.571	447	397.491		
	총계	223956.692	453			
2	회귀분석	51354.967	11	5135.498	13.212	.000
	잔차	172601.721	443	388.742		
	총계	223956.690	454			

<표 8> 분산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1]의 F값은 19.237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기본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ESG 관련 변수들이 추가된 [모형2]의 F값은 13.212이며, 유의확률은 0.01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ESG 등급을 포함한 확장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모형 모든 항목에서 상당한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모형2]의 유의성이 확인된 것은 ESG 등급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설명변수로 기능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9>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기전에,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공차한계(TOL)는 0.1 이상, 분산팽창계수(VIF)는 10 미만으로 나와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ww.kci.go.kr

<표 9>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오차	Beta			Tolerance	VIF
1	(상수)	4.094	14.591		.282	.779		
	LEV	.008	.008	.056	1.194	.234	.849	1.178
	SIZE	.492	.745	.034	.658	.510	.672	1.489
	FOR	-.118	.095	-.065	-1.259	.208	.693	1.442
	OWN	-.063	.061	-.043	-1.006	.315	.945	1.058
	ROA	1.432	.141	.468	10.118	.000	.827	1.212
	PBR	.109	.694	.008	.155	.878	.952	1.052
2	(상수)	-9.292	17.454		-.531	.594		
	LEV	.004	.008	.034	.723	.471	.833	1.202
	SIZE	1.097	.963	.075	1.138	.257	.392	2.548
	FOR	-.148	.096	-.080	-1.574	.116	.678	1.473
	OWN	-.068	.061	-.048	-1.132	.259	.940	1.065
	ROA	1.388	.141	.456	9.867	.000	.816	1.227
	PBR	.218	.695	.014	.312	.756	.930	1.077
	ESG_T	-2.098	2.761	-.108	-.760	.449	.087	7.446
	ESG_E	3.253	1.446	.197	2.250	.026	.229	4.361
	ESG_S	-3.058	1.340	-.207	-2.281	.024	.212	4.711
	ESG_G	2.722	1.740	.106	1.567	.117	.384	2.603

주1: 종속변수_GRW

주2: GRW(매출성장률), LEV(부채레버리지), SIZE(기업크기), FOR(외국인지분), OWN(대주주지분), ROA(총자본수익률), PBR(주가의순자산비율)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 평가등급(ESG_E)은 t=2.25, p=0.02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며, 표준화 계수 Beta값이 0.196으로 나타나 환경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기업의 회복탄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 평가등급(ESG_S)의 경우 t=-2.281, p=0.024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나, 표준화 계수 Beta값이 -0.207으로 나타나 사회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ESG 통합등급(ESG_T)과 지배구조 평가등급(ESG_G)은 회귀계수 검정결과

www.kci.go.kr

p>0.05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들 영역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ESG 경영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각 영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환경 영역에서의 성과가 기업의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환경 경영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 기업의 ESG등급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B	SE	Beta	t(p)	B	SE	Beta	t(p)
(상수)	4.094	14.591		.281	-9.290	17.452		-.531
LEV	.008	.008	.056	1.194	.005	.009	.034	.724
SIZE	.492	.744	.035	.659	1.095	.963	.075	1.137
FOR	-.118	.095	-.063	-1.258	-.148	.095	-.081	-1.574
OWN	-.061	.061	-.043	-1.005	-.068	.061	-.048	-1.133
ROA	1.432	.141	.468	10.116***	1.389	.142	.455	9.866***
PBR	.107	.694	.008	.155	.216	.695	.014	.311
ESG_T					-2.097	2.761	-.108	-.760
ESG_E					3.253	1.446	.197	2.250*
ESG_S					-3.058	1.340	-.205	-2.281*
ESG_G					2.725	1.740	.104	1.566
F(p)	19.237***				13.212**			
R2	.204				.228			
adj. R2	.193				.211			

주1: p*< .05 ,p**< .01 ,p***<.001

주2: 독립변수- GRW

주3 : GRW(매출성장률), LEV(부채레버리지), SIZE(기업크기), FOR(외국인지분), OWN(대주주지분), ROA(총자본수익률), PBR(주가의순자산비율)

<표 10>은 ESG 등급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부채레버리지(LEV), 기업크기(SIZE), 외국인지분(FOR), 대주주지분(OWN), 총자산수익률(ROA), 주가의순자산비

www.kci.go.kr

율(PBR)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고, [모형2]에서는 ESG 관련 독립변수들(ESG_T(통합), ESG_E(환경), ESG_S(사회), ESG_G(경영투명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두 모형 전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모형1]: F=19.237, p<0.001; [모형2]: F=13.212,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모형1]의 0.204에서 [모형2]에서 0.228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변화량=3.521, p=0.008). 이는 ESG 요인들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ESG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환경(ESG_E)과 사회(ESG_S)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환경 평가등급은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197, t=2.25, p=0.025), 사회 평가등급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05, t=-2.281, p=0.023). 반면, ESG 통합등급(ESG_T)과 지배구조 등급(ESG_G)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표준화 계수를 통해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사회 영역(β=-0.205)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 영역(β=0.197), 지배구조 영역(β=0.104), 통합 등급(β=-0.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SG 경영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각 영역별로 상이하며, 특히 환경과 사회 영역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 결론

5.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5.1.1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ESG 경영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통합경영수준(ESG_T)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1]은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는 ESG 경영의 통합적 수준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환경경영수준(ESG_E)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

www.kci.go.kr

설2]는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t=2.25, p<0.05)가 도출되었다. 이는 환경 경영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위기 대응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경영수준(ESG_S)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검증한 [가설3]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었으나(t=-2.281, p<0.05), 영향의 방향이 부(-)로 나타나 당초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지배구조경영수준(ESG_G)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4]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의 ESG 경영활동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ESG 영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환경경영수준(ESG_E)이 기업의 회복탄력성 지표인 매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사회경영수준(ESG_S)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모든 ESG 영역에서 정(+)의 영향을 예상했던 연구가설과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ESG 경영활동의 영향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 부문에서의 성과가 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환경 관련 위험 관리와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이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적 책임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ESG 경영의 시간적 차원과 비용-효익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5.1.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ESG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장기적 이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ESG 평가지표의 불균형으로 인한 평가제도의 한계가 존재하며, ESG 경영 활동과 기업 재무성과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SG 경영활동이 정보 공시 의무화와 관련 비용 증가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 연구 결과는 지속적인 ESG 활동을 통해 특히 환경경영(ESG_E) 등급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회복탄력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ESG 활동, 특히 환경 경영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금리상승기라는 단기적 시점만을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여 ESG 부문별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았던 다양

www.kci.go.kr

한 시기를 포함하는 장기적 관점의 분석이 필요하며, 회복탄력성 측정에 있어서도 매출 성장률 외에 수익성, 안정성 등 다양한 재무적 지표를 활용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코스피 상장 제조업체로 한정된 연구 범위를 금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ESG 경영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업들의 ESG 전략 수립에 더욱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강현숙, 박영은. (2024). ESG 경영활동 인식이 지각된 가치, 태도,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용카드리뷰**, **18**(2), 29-52.

김동주. (2009).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본 기업의 외부적 CSR 활동과 종업원 및 주주의 이익. **인적자원관리연구, 16**, 29-47.

김수욱, 이치송. (2015). **지속가능경영이 기업가치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201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531-549). 한국산업경제학회.

권재득, 이진춘. (2017). **기업의 회복탄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2017년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pp. 734-758). 한국경영학회.

박경서. (2021). **지속가능한 ESG 경영과 책임투자** (1월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박영석, 이효섭. (2021).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슈보고서, 21-10). 자본시장연구원.

삼정KPMG. (2020). **ESG 경영시대, 전략패러다임 대전환**. 서울:삼정KPMG.

양진수. (2021). **자본시장 변동 시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윤조현. (2021). **ESG 등급이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 관련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효정, 김규림, 임두빈, 박도휘, 전창의, 장지혜. (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서울: 삼정KPMG경제연구원.

임현일, 최경진.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위험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31**(3), 791-815.

정영모. (2007).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상논집, 21**(1), 73-94.

정현경, 송거영, 김상봉. (2024). ESG 경영활동이 소비자 신뢰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용카드리뷰, 18**(2), 126-127.

정현경, 이정수, 김상봉. (2024). ESG 경영이 기업평판과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신용카드리뷰, 18**(4), 59-76.

한기수. (198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7**, 187-212.

IBK경제연구소. (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서울:IBK기업은행.

Albuquerque, R., Koskinen, Y., Yang, S., & Zhang, C. (2020). Resiliency of environmental and social stocks: an analysis of the exogenous COVID-19 market crash. ***The Review of Corporate Finance Studies, 9***(3), 593-621.

Carroll, A. (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4***(4), 497-505.

Cheema-Fox, A., LaPerla, B., Serafeim, G., & Wang, H. (2020). Corporate resilience and response during COVID-19.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33***(2), 24-40.

Christopher, M., & Peck, H. (2004). Building the resilient supply chain. ***The Internation 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15***(2), 1-14.

www.kci.go.kr

Coppola & Rinkel. (2020). ***Financing a sustainable transition.*** Deloitte Insight.

Coutu, D.L. (2002). How resilience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80***(5), 46-56.

David C. Broadstock. (2020). The role of ESG performace during times of financial crisis: Evidence from COVID-19 in China. ***Finance Research Letters, 38***(C).

Demers et al. (2021). ESG did not immunize stocks during the COVID-19 crisis, but investm ents in intangible assets did. ***JBFA, 48***(3-4), 433-462.

Fiksel, J. (2006).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toward a systems approach. ***Sustainability: Science, Practice and Policy, 2***(2), 14-21.

Folke, C., Carpenter, S., Walker, B., Scheffer, M., Elmqvist, T., Gunderson, L., & Hollin g, C.S. (2004). Regime shifts, resilience, and biodiversity in ecosystem management. ***Annual Review of Ecology, Evolution, and Systematics, 35***, 557-581.

Galbreath, J. (2013). ESG in focus: The australian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8***, 529-541.

Gorman et al. (2005). ***Qualitative research for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A pracrical handbook.*** Facet.

Hoang, Thi Hong Van. (2020). Does ESG disclosure transparency help mitigate the COVID-19 pandemic shock? An empirical analysis of listed firms in the UK. ***Journal of Innovation Economics & Management, 41,*** 75-106.

Hollings, C. S.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 1-23.

Jin, X., & X. Lei. (2023). A Study on the mechanism of ESG's impact on corporate value under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15***(11), 1-22.

Lins, K. V., Servaes, H., & Tamayo, A. (2017). Social capital, trust, and firm performance: The val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of Finance, 72***(4), 1785-1824.

Merriam-Webster. (2007). Webster's Dictionary, ***Merriam-Webster***, Inc. - 2007 - Federal Street Press

Ortiz-de-Mandojana & Bansal. (2016). The long-term benefits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through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8), 1615-1631.

Rice & Caniato (2003). Building a secure and resilient supply network. ***Supply Chain Management Review, 7***(5), 22-30.

Seville, et al. (2008). Organisational resilience: researching the reality of New Zealand organisations. ***Journal of Business Continuity & Emergency Planning, 2***(3), 258-266.

Stoltz, P. G. (2004). ***Adversity quotient: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ies.*** Wiley.

Zheng, Y., B. Wang, X. Sun & X. Li. (2022). ESG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analysis from the stakeholders perspective. ***Frontiers in Environmental Science, 10***, 1-16.

www.kci.go.kr

The Impact of a Company's ESG rating on Resilience: Focusing on KOSPI-listed Manufacturing Companies

Min-Soo Koh*

Director, ESG Certification Institute & Ph D. candidate, Smart Convergen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Sang Bong Kim**

Professor, Deparment of Economics, Hans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corporate resilience due to increased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y after the COVID-19 pandemic. While ESG management, consisting of environmental (E), social (S), and management transparency (G), has emerged as a new standard for companies, the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ESG ratings on corporate resilience in the face of rising interest rates. To measure resilience, sales growth was used by comparing the third quarter of 2021 and the third quarter of 2022,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455 KOSPI-listed manufacturers that were given ESG ratings by the Korea ESG Standards Institute (KCG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environmental (E) side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sales growth rate, and the social (S) side had a negative (-) effect. However,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integration side and the governance sid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ESG management activities, especially performance in the environmen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a company's ability to overcome crisis in an economic environment when uncertainty increases. This study can be seen as an academic contribution of the study in that it statist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ESG management performance on corporate resilience.

Keywords: ESG rating, Resilience, Sales growth, KOSPI-listed manufacturers

<최초 투고일: 2025년 2월 26일>, <수정일: 2025년 3월 2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3월 28일>

* Address: No. 603, 6th floor, 21 Hyoryeong-ro 53-gil, Seocho-gu, Seoul (Seocho-dong) E-mail: gomminsu@hanmail.net, Tel: +82-10-7614-0875

** Address: 116, Samseongyo-ro 16-gil, Seongbuk-gu, Seoul 03016, Korea, E-mail: brainkim75@hansung.ac.kr, Tel: +82-2-760-8038

www.kci.go.kr